

시진핑의 정치: 한류 문화 갈등*

유신일**

|| 차례 ||

1. 서론
2. 시진핑 정치의 등장
3. 정치권력 기반의 장악과 전개
- 3.1 정치권력 기반의 장악
- 3.2 권력의 전개
- 3.2.1 전면심화개혁소조와 중앙재경영도소조
- 3.2.2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國家安全委員會)
4. 시진핑 정치의 전개와 한류문화
- 4.1 중앙인터넷안전정보소조(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小組)
- 4.2 중국에서의 한류와 중앙인터넷안전정보소조
5. 맺음말

[국문초록]

시진핑(習近平) 정치 노선이 2013년 전반적 개혁을 선언한 이후, 올해 2016년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주요 개혁 대상이 인터넷, 출판, 언론매체 방송과 관계된 소위 문화산업이다. 2013년 이후 그동안 먼저 정치, 경제, 국방, 대만 관계 등 방면의 안보 강화에 개혁의 초점을 두었다면, 2016년 시진핑은 인터넷, 출판 그리고 언론 매체의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13차 5개년 계획, 일대일로와 같은 경제 분야와 한중, 북중관계와 같은 동북아에서의 정치 외교적 이슈도 중국의 주요 당면 과제이지만, 특히 중국의 문화산업의 안보 강화가 2016년 시진핑 정치의 새로운 주요 관심사다. 그런데, 중국의 이 문화산업 안보 강화에 대해 한국이 주목해야 할 원인은 한류 산업 때문이다. 한류 산업이 한국 경제와 한중 경제 교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내용이다. 인터넷 언론 매체 등 문화 산업에 대한 시진핑의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오히려

* 이 연구는 고신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고신대학교 중국학과

북경, 상해, 천진시의 자유무역구 내에서는 방송 제작물과 그 제작물의 유통 산업과 관계된 해외 외자 기업의 100% 독자 설립을 여전히 허락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지경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의 접근성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잘 허가를 해 주지 않았거나, 금지 분야였던 대부분의 문화 산업을 포함한 의료 등 기타 서비스 산업 분야까지도 중국은 이제 해외 자본의 투자를 허가하고 있다. 시진핑의 문화 산업에 대한 안보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한류가 상호 교류, 상호이익, 상호 존중을 잘 내포하고, 한류 확산에 유리한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2016년 거대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우리의 문화산업, 한류산업의 강점만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시진핑, 한류문화, 중앙인터넷안전정보소조, 개혁개방, 정치권력, 종속변수, 상호이익

1. 서론

Clive Gray¹⁾는 문화적 행위와 정치와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 검토하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Blanning, T.²⁾나 Finlayson, A 와 J. Martin 같은 이들도³⁾ 정치와 문화적 행위의 상호영향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다. Wallis, J와 B. Dollery는 경제적인 환경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며, 경제 환경의 조작으로 문화적 행위에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⁴⁾ 이러한 연구들처럼 일반적으로 민주사회에서 정치와 문화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정치 환경의 영향력이 여전히 중국이나 러시아, 특

1) Clive Gray, "Politics and Culture: Reformulating the Proble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Aberdeen University, April, 2002

2) Blanning, T, "The Culture of Power and the Power of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3) Finlayson, A and J. Martin, "Political Studies and Cultural Studies", Politics, Vol.17, 1997, 183-189면.

4) Wallis, J and B. Dollery, "Understanding Cultural Changes in an Economic Control Agency", Journal of Public Policy, Vol. 21, 2001, 191-212면.

히 북한의 경우, 정치적 독립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문화는 하나의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태양 아래’를 제작한 러시아의 만스키 감독은, “영화 속에서 북한 관료들은 진미와 부모의 대화 하나하나까지 지시한다. 더 놀라운 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연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라며, “진미 아빠가 일하는 것으로 연출된 봉제공장에 봉제사 100여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진미 아빠를 본 적도 없는데도 관계자들이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연기가 아니라, ‘태양아래’의 가정, 직장, 사회의 모습들은 Command Economy 체제 아래서, 정치 정책과 명령에 의해 삶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사회생활의 종속적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⁵⁾.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에 종속되는 사회 행위는 문화 행위뿐만 아니다. Zhi Yue Bo는 중국인들의 경제행위와 1949년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까지의 중국 전체적인 경제적 실적마저도 독립변수인 정치적 정책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물론 오늘의 중국과 북한의 정치 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정치의 독립변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이 논문은 사회주의적 정치의 독립변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 시진핑 체제 하의 작금의 중국 문화 환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 도표 1에서와 같이 먼저 시진핑 정치 노선의 흐름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중국에서의 한류문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다.

2. 시진핑 정치의 등장

시진핑의 전임 후진타오(胡锦涛)는 1992년 등소평(邓小平)에 의해 강택민(江泽民)의 후계자로 지명되었고, 10년 이후 2002년에 공산당 총서기가 되었다. 시진핑이 후진타오의 후계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이었다. 2007년 3월 이후 몇 달 사이에 시진핑이 갑자기 당시 후진타오의 최측근으

5) <http://magazine2.movie.daum.net/movie/37260>

6) Zhi Yue Bo, “Chinese Provincial Leaders Economic Performance and political Mobility since 1949”, , M.E. Sharpe Inc., 2002, 4-5면

로 알려졌던 리커창(李克強)에 비해 정치 서열상 앞서기 시작했다⁷⁾. 당시 강택민의 지지였던, 아니면 후진타오의 지지 때문이었던, 시진핑은 2007년부터 리커창 보다 앞서기 시작했고, 국가 부주석이 되었다. 사실 2007년 전까지는 리커창이 시진핑에 비해 성장, 성 당서기, 그리고 공산당 중앙위원으로 먼저 선출되었다⁸⁾. 그러나, 후진타오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 10년 기다렸지만, 시진핑은 5년 이후 2012년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진핑을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택민이나 후진타오와는 달리, 시진핑은 2012년 11월 제 18기 중국 공산당대표대회와 2013년 3월 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치면서, 총서기뿐만 아니라, 당 군사위원회 주석, 국가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국가 주석까지 한꺼번에 후진타오로부터 인수를 받았다. 한때, 후진타오가 총서기와 국가 주석 직을 먼저 시진핑에게 물려주고, 군사위원회 주석 직을 등소평과 강택민의 선례대로 최소한 1,2년 이후에야 시진핑에게 인수인계할 것으로 예측되어 졌다. 전임 후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진핑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일인자 였고, 막강한 총리로 기대됐던 리커창의 견제로 시진핑의 리더쉽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추측들이 설왕설래되었다. 심지어 후진타오는 2022년 시진핑의 후계자로서 현 광둥성 서기 후춘화(胡春華)까지 발탁, 조치한 이후 총서기직으로부터 물러났던 것이다⁹⁾.

2013년 제 일인자로 등장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 중국 공산당 정부 성립 100주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개혁개방 노선 100주년, 즉 소위 삼보주(三步走)를 통하여, 2080년까지 중화민족의 부흥을 재현하자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비전, 중국몽(中國夢)을 제시하며, 그의 정치노선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¹⁰⁾.

7) <http://www.rfa.org/mandarin/zhuanlan/yehuazhongnanhai/gaoxin-11282012162713.html>

8) 유신일, “시진핑 노선과 그 의미”, 「한국동북아 논총」, 제19집 3호, 2014, 25면

9) 위의 글, 25면

10) 唐洲雁, “實現中國夢的重大戰略部署”, 中央文獻出版社, 2013, 4-9면.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習近平關於實現中華民族大復興的中國夢論述摘編”, 中央文獻出版社, 中國, 2013, 3면

3. 정치권력 기반의 장악과 전개

3.1 정치 권력 기반의 장악

시진핑은 2012년 제 18기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와 2013년 3월 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치면서, 당시의 예상을 뒤엎고 중국 공산당 총서기, 당과 국가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국가 주석까지 한꺼번에 후진타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명실공히 중국의 일인자로 등장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제 일인자로 등장한 시진핑이 해결해야 할 여러 정치 경제적 과제는 산적해 있었다. 소위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¹¹⁾의 한계로, 중국 경제는 2007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14.2%였고, 그 이후, 2008 9.6%, 2009년 9.2%, 2010년 10.4%, 2011년 9.3%, 2012년 7.8%, 2013년 7.7%, 2014년 7.4%, 2015년 6.9% 등으로,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다¹²⁾. 거시적 경제 성장률의 하락 추세뿐만 아니라, 외자기업 위주의 대외경제,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소득 불균형, 불량 대출일 가능성이 많은 GDP의 70%나 되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의 규모¹³⁾ 등등으로 JP Morgan이나, TIME, Financial Times 등은 중국발 국제 경제 위기를 경고해 왔다.¹⁴⁾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대한 경고 이외에, 정치적으로도 부정부패의 만연, 정경유착, 소수 민족지역의 독립운동, 소수민족 정책, 그리고 정치 민주화 운동 등등 여러 정치적 과제가 산재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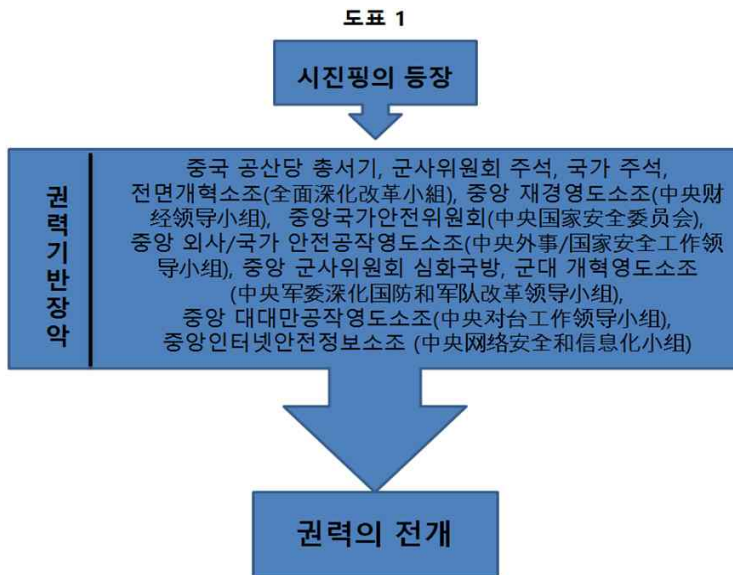
11) 투입(Inputs)된 생산요소가 결과(outputs)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자된 비효율적이 외연적 성장에 비해, 최근 중국은 내연적(Intensive Growth), 즉 효율적인 성장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12) http://www.gov.cn/guowuyuan/2015-03/16/content_2835101.htm

13) <http://time.com/8671/why-you-need-to-worry-about-chinas-shadow-banking/Feb.19,2014>.

14) <http://www.ft.com/cms/s/0/f627e162-cc96-11e3-ab99-00144feabdc0.html#axzz35BNGWKO>

이러한 정치, 경제적 과제와 함께, 시진핑은 2013년 12월 30일, 중국 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중국의 전반적 개혁을 발표하며, 이 개혁의 총체적 설계와 각 분야 간 상호 협력, 전체적인 추진과 감독 역할을 담당할 개혁 소조(全面深化改革小組)를 구성하고, 자신이 이 소조의 조장을 맡는 것으로 발표했다. 정치 경제적 전반적인, 실제적인 개혁 실무를 자신이 직접 주도하겠다는 것이었다(참고:도표 1).



연이어, 시진핑은 그동안 총리가 실무 책임을 맡아 왔던 경제 분야를 관리하는 중앙재경영도 소조의(中央財經領導小組) 조장과, 국방, 외교, 정보기구, 공안 무장경찰 분야를 포함한, 외교부, 국방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상무부, 화교(華僑) 사무실, 신문 언론 사무실, 중앙선전부, 중앙 대외연락부, 총참모부 등의 핵심 인물들로 구성된 중앙 국가 안전위원회(中央國家安全委員會)의 조장도 겸직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시진핑은 국방과 군의 현대화를 책임지는 중앙 군사위

원회 심화 국방, 군대 개혁 영도 소조(中央军委深化国防和军队改革领导小组)와, 양안관계, 즉 중국과 대만 관계를 책임지는 “중양 대대만 공작 영도 소조(中央对台工作领导小组)”의 조장도 겸직했다. 특히 음악,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산업, 한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터넷과 신문방송 등의 문화 산업을 감독하는 “중양 인터넷 안전, 정보 소조(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小组)” 등을 조직하여, 이 소조의 실무 책임자의 직책도 겸직하였다(참고: 도표 1)¹⁵⁾.

시진핑은 1949년 이후 중국 사회주의 역사상 모택동, 등소평을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에 비해서도 가장 많은 공식(formal)적인 직함을 가진 일인자가 되었다. 이에 대해, 호평(胡平)이나, 하량량(何亮亮) 등은 혁명 전력으로 절대적 리더쉽을 확보한 모택동과 등소평과는 달리, 혁명 전력이 없는 시진핑이 무리하게 공식 직함으로 절대 권력을 확보 할려는 시도로 분석했다.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정치권력의 불안정과,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¹⁶⁾

공산당 총서기, 국가 주석, 군사위원회 주석 직 이외에(참고: 도표 1), 상기와 같은 여러 소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조장으로서 이런 소조들을 잘 관리할 경우, 시진핑은 기존 중국 정치 조직에서 강택민, 후진타오 등 원로들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시진핑 자신을 간섭할 만한 개인도, 조직도, 기구도 없는 막강한 리더쉽의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다.

3.2 권력의 전개

3.2.1 전면심화개혁소조(全面深化改革小组)와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财经领导小组)

막강한 정치적 조직과 리더쉽 가능성을 확보한 시진핑은 2014년 개혁소조

15) 유신일, “시진핑 노선과 그 의미”, 한국동북아 논총, 제19집, 3호, 2014, 33-34면
<http://news.qq.com/a/20140614/006237.htm>

16) <http://www.chinatimes.com/show.asp?ArticleID=29289>

와 재경영도 소조의 책임자로서, 경제까지 실질적으로 지휘해 왔다. 시진핑은 리커창의 경제 총리로서의 역할을 무색하게 하며, 리커창을 역대 가장 힘없는 총리라는 평가를 받게 하고 있다. 때로는 시진핑과 리커창의 경제 정책이 서로 상이한 내용을 주장함에 따라, 중국 국,내외의 경제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Wall Street Journal은 국유기업의 개혁 방향에 대해 시진핑은 국유기업이 더욱 강하고, 우량하고, 커져야한다고 한 반면, 리커창은 국유기업들의 구조 조정과, 시장화를 주장하였다¹⁷⁾며, 시진핑과 리커창의 불협화음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일부 대만, 홍콩을 비롯한 해외 전문가들은 2017년 이제까지의 “5년 이후 한차례 연임으로, 10년 총리직”의 관례와는 달리 리커창이 총리를 연임할 수 없을 것이란 예측을 하기도 한다¹⁸⁾. 리커창 총리이후 중경시 당서기 손정차이(孫政才), 국무원 부총리 왕양(汪洋), 상해시 당서기 한정(韓正) 등등 중에서 누가 차기 총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이미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3.2.2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国家安全委员会)

경제뿐만 아니라, 시진핑은 정보기구, 공안 무장 경찰, 국방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등이 포함된 국가 안전 위원회 조장으로서의 실세 권력을 발휘하며,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정치국 상무위원이었고, 공안부장이었던 저우용강(周永康)과, 태자당 출신 전 중경시 당서기 뻬시라이(薄熙来), 후진타오의 최측근 이었던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링지화(令计划), 전 군사위원회 부주석 쉬 차이허우(徐才厚), 하북성 당서기 저우번순(周本顺) 등등을 숙청한 바 있다. 파리뿐만 아니라 호랑이까지(打老虎:호랑이를 잡고, 拍苍蝇:파리를 잡다)도 잡겠다는 반부패 정책이 2014년 이후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시진핑은 국방과 군을 관리하는 “중앙 군사위원회 심화국방, 군대

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2/0200000000AKR20160722145900009.HTML>

18) 谢凡平, “总理争夺战”, 领袖出版社, 2015, 4-112면

개혁 영도 소조(中央军委深化国防和军队改革领导小组)” 조장으로서, 원래 7대 군구를 동북(东北)、서북(西北)、동남(东南)、서남(西南) 등 4대 전구(戰區)로 바꾸고, 기타 군의 조직 등에 대폭적인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군을 장악하며, 군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Wall Street Journal 과 Jamestown Foundation, 영국의 BBC 그리고, 일본, 독일, 각국의 언론들이 2015년 연말쯤, 중국군 60년 이래의 최대의 군 개혁으로 보도한 바 있다¹⁹⁾. 뿐만 아니라, 시진핑은 “중양 대대만 공작 영도 소조(中央对台工作领导小组)” 조장으로서 2015년 11월 7일 싱가포르에서 66년 만의 공산당과. 국민당 최고 리더가 만나는 이벤트를 진행했었다. 아쉽게도, 시진핑의 지지와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2016년 1월 16일 대만 선거에서 대만의 독자적 노선을 주장하는 야당인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총통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4. 시진핑 정치의 전개와 한류 문화

4.1 중양 인터넷 안전,정보 소조(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小组)

시진핑은 2013년 이후 매년마다 자신이 조직한 주요 소조들과, 조장으로서의 역할들 중에 한 분야씩 강조하며, 집중적으로 집행 해왔다. 2016년 2월 19일 시진핑은 인민일보, 신화사, CCTV를 방문하고, 당일 신문방송 언론 매체 좌담회에 참석하였다. 그 좌담회에서 시진핑은 공산당의 “신문과 언론 매체 종사자들의 직책과 사명(黨的新聞輿論工作的職責和使命:당적신문여론공작적직책화사명)”이란 제목의 48개 단어²⁰⁾를 제시하며, 2016년 인터넷 정보

1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02_0010453496&cID=10101&pID=101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3/0200000000AKR20160203118600089.HTML>

20) 党的新闻舆论工作要“高举旗帜、引领导向，围绕中心、服务大局，团结人民、鼓舞

소조(중앙인터넷안전정보소조: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小组)의 조장으로서의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이 인터넷 정보 소조의 역할이 음악,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산업, 한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터넷과 신문방송 등의 문화 산업을 감독하는 것이다. 중국 전역의 신문,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과 관계된 주요 관계자들이 2016년 2월 이후 시진핑의 48개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며,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맞는 신문방송, 인터넷, 모바일 문화 작품들을 제작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중국은 신상태(新常态), 소위 New Normal 이라는, 저성장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2016년 13차 5개년 규획발전을 시작했고, 일종의 지역 개발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²¹⁾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세계적인 뉴 노멀의 저성장 중에서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이러한 경제 정책적인 이슈와, 사드배치로 인한 남북한관계, 대한민국, 대미국과의 국제관계에서의 중국의 입장도 2016 중국의 주요 당면 과제이며, 시진핑이 관심 가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은 2016년 시진핑에 의해 새롭게 강조된 인터넷정보 소조의 역할과 정책을 과거 그 어느 해 보다 신중하게 집행할 것이다.

4.2 중국에서의 한류와 중앙인터넷안전정보소조

중국에서의 한류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²²⁾. 그중에서도, 최석만은²³⁾, “IT산업이 발전하면서, 대중문화에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

士气, 成风化人、凝心聚力, 澄清谬误、明辨是非, 联接中外、沟通世界”. 대체적으로 요약하면, “신문방송매체 모든 방송, 보도 내용들이 공산당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방영해야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 환경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21)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는 중국 정부의 국가급 개발 경제 전략 중 하나이며, '실크로드 경제대(絲綢之路经济带)'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21世紀海上絲綢之路)'의 약칭이다.

22) 유신일, “중국에서의 한류”, 「China 연구」, 제14집, 2013.2. 333-354면

23) 최석만, “한류:한국전통문화의 재해석”, 「동양사회사상」, 제15집, 2007, 11-13

고 핸드폰과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문화산업의 시장 또한 커졌다.”라고 서술하였다. 서동훈, 박영균 역시, “한류가 일어 날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들 수 있다. 콘텐츠의 대량생산과 대량 유통이 강화되는 기술융합의 시대에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IT 산업은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²⁴⁾라며, 한류의 확산과 발전을 한국의 핸드폰, 인터넷, IT 산업 등의 우수한 기술력과 연관시키고 있다. 즉 현대 IT 과학기술로 무장한 문화산업들의 결과로,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영화, 음악, 패션, 미용, MP3 등과 스타들의 최신 소식들이 신문, 방송, 기타 언론 매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한, 중 양국 간에 실시간으로 오고 가면서, 인류 역사상 어느 시기에 비해 빠른 속도로 중국 전역 곳곳에 한류가 확산되어 왔던 것이다²⁵⁾.

반면에, 장귀리는 한류를 질투하는 중국 연예계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침구(鍼灸)는 분명히 중국인이 발명한 것인데 대장금에서는 한국인이 발명했다고 나온다. 기자들은 마땅히 중국 배우와 드라마를 더 많이 홍보해야 한다. 한류를 조장하는 중국 언론들은 매국노다.”²⁶⁾”라며, 한류내의 중국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실례를 들며,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반한류, 혐한류를 조장한 바 있다. 중국의 TV, 라디오, 영화 등 대중매체를 총괄하는 중국 광전총국은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방송량을 2012년 대비 최대 50%까지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

즉, 중국에서의 한류의 확산도, 반한류와 혐한류 역시 방송, 신문, 기타 언론 매체, 인터넷, 모바일, 현대 IT 산업의 발전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특히 중국의 광전 총국과, 그리고, 2016년부터는 인터넷 정보소조와 시진핑 정치가 직접적으로 방송, 신문, 기타 언론 매체, 인터넷, 모바일 등에 간섭할 경우, 중국에서의 한류 문화 환경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면

24) 서동훈, 박영균, “한류가 베트남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11.15, 13면

25) 유신일, “중국에서의 한류”, 『China 연구』, 제14집, 2013.2, 343-344면

26) <http://dailychina.net>, (blog.naver.com/dailycn) 2006년 1월 10일

한류가 중국인들의 교육²⁷⁾, 문화²⁸⁾, TV 프로그램²⁹⁾, 청소년³⁰⁾, 음악³¹⁾, 의류³²⁾, 여행³³⁾, 소비³⁴⁾ 등 각 방면에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³⁵⁾. 한류가 중국내에서 문화 침략이나, 문화 식민주의의 한 형태라는 인상을 남긴다든지,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³⁶⁾을 미친다거나, 특히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정치 노선의 방향과 정책들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의 한류는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정보소조는 중국에서의 한류가 중국인들에게, 중국 공산당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평가할 것이다. 인터넷 정보소조는 한류가 중국의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자기 국익에 침해된다고 판단할 때, 한류 발전의 주요 수단인 중국내 TV, 라디오, 영화, 신문, 핸드폰, 인터넷 등에 직접적인 행정 간섭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정책이나, 사드배치와 같은 안보 정책이 시진핑 정치 방향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정보소조의 정부 정책으로서, 중국 광전 총국을 통한 간섭으로 중국내 한류 문화와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정보소조나, 광전국을 동원한 시진핑 정치가 향후 중국에서의 한류 문화 확산을 간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전체에 이미 확산된 한류 문화는 “상호교류”,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 추구를 잘 관리한다면, 시진핑 정치도 비합리적으로까지 중국내 한류문화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즉, 시진핑 정치 노선이 한류문화에 대한 독립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이미 단순한 선형함수의 관계는 아니고, 중국 국민들의 소득 증가, 해외여행의 기회,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등과 같은 기타 다른 독립변수가 있

27) <http://www.21hanguo.com/zuixin/244.html>

28) <http://www.lwlm.com/shehuiwenhua/201112/599104.htm>

29) <http://news.sina.com.cn/m/2014-03-11/171729681584.shtml>

30) <http://wenda.tianya.cn/question/10a4949eac3d169e>

31) <http://zhidao.baidu.com/question/43202368>

32) <http://wenku.baidu.com/view/d6e398ea6294dd88d0d26b34.html>

33) <http://www.1mishu.com/lunwen/xinzhen/lygllw/201002/441589.html>

34) <http://www.doc88.com/p-69491740524.html>

35) 유신일, “중국에서의 한류”, 「China 연구」, 제 14집, 2013.2, 350-351면

36) <http://wenda.tianya.cn/question/10a4949eac3d169e>

어서, 다변수의 다차원 독립변수이거나, 혹은 외생 변수(exogenous variable)가 있을 수 있다.

본 저자가 “중국에서의 한류”³⁷⁾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일방적 한류 수출이 아니라, “상호 교류”를 유지하고, 한류가 문화 침략이나 문화식민지의 형태가 아니라, 한중 소비자들에게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호 기회라는 인식을 잘 실천하며, 특히 중국 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을 한류 문화에 내포한다면, 시진핑 정치의 문화 상품에 대한 독립적 변수의 간섭이 강화되더라도, 중국에서의 한류는 장기화 될 수 있을 것이다.³⁸⁾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 600만 명으로 예상되는 국경절(10월 1~7일) 해외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으로 오는 사람은 약 25만 명. 연휴기간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 여행객의 4%로 지난해보다 약 4만 명이 늘었다.”라며, 석동연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기도 한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한중(韓中)관계가 냉각돼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지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³⁹⁾

시진핑 정책이 한류를 간섭하고자 할 때, 물론 그 정치 노선에 부응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주의를 중시하고, 자기 이익과 욕구 추구를 우선시 하는 특히 젊은이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소위 한한령(限韓令)⁴⁰⁾에 무관하게 여전히 한류 상품들을 소비하고자 한다. 일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것을 한한령의 원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⁴¹⁾. 그러나, 정부 관료들조차도 한한령의 분위기는 일시적이지만, 정부 관료 자신들에 대한 장기적인 인사 평가의 가장 주요한 지표는 역시나 경제적 성과다. 즉, 자기와 관계된 지역이나 부분의 경제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한류 문화 프로젝트일 경우, 한한령에 상관없이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 경북 성주 사

37) 유신일, “중국에서의 한류”, 『China 연구』, 제 14집, 2013.2, 350-351면

38) 유신일, “중국에서의 한류”, 『China 연구』, 제 14집, 2013.2, 343-354면

39) <http://china.donga.com/Main/3/all/43/754604/1>

40) 限韓令:한류를 제한하고자 하는 중국 중앙 정부의 정책

41) <http://ize.co.kr/articleView.html?no=2016120409147257022>

드 부지를 제공했던 중국 롯데의 세무 조사를 추진했던⁴²⁾, 중국이 그동안 장기간 미뤄왔던 중국 심양 초고층 롯데월드 건축을 2016년 12월 13일 허가했다⁴³⁾.

필자가 친상대사(親商大使: 일종의 홍보대사)로 있는 상해시 봉현구가 한류 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한류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상해시 지역 대표단들이 2016년 올해에만 7월에 이어 2016년 12월 5일-8일 기간 한국을 재차 방문하고, 이랜드와 CJ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를 방문했다. 특히 이번 12월 방문단 단장은 상해시 봉현구의 공산당 상무위원으로서,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선전부 부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 선전부 부장 쉬웨이(徐偉)와 지역 신문사 편집장 치엔쥬쥘(錢忠群)등이 부산 해운대 구청대표단들과 교담하는 중에 한한령에 대해 중앙으로부터의 지령은 없었고, 걱정할 필요없다는 주장을 했었다.⁴⁴⁾ 한국에서는 사드 사태로 인해 한한령에 대한 여러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해시 관계자들은 상해시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한류 산업들을 참관하고, 한류 산업의 유치를 희망했으며, 상해 해변가의 발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해운대를 방문했던 것이다.

5. 맺음말

시진핑 정치 노선이 2013년 전반적 개혁을 선언한 이후, 올해 2016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주요 개혁 대상이 인터넷, 출판, 언론매체 신문 방송과 관계된 소위 문화산업이다. 2013년 이후 그동안 먼저 정치, 경제, 국방, 대만 관계 등 방면의 안보 강화에 개혁의 초점을 두었다면, 2016년 시진핑은 문화산업의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13차 5개년 계획, 일대일로와 같은 경제 분야와 한중, 북중관계와 같은 동북아에서의 정치 외교적 이슈도 중국의 주요 당면 과제이지만, 특히 인터넷, 출판, 언론 매체 등 방면의 중국의 문화 안보

4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2/2016120200273.html

43) <http://www.hankookilbo.com/v/ae24b7fa480b44eaba27da5b51dae08a>

44) <http://www.beautynury.com/m/news/view/73222/cat/10/cat2/10100/page/180>

강화가 2016년 시진핑 정치의 새로운 주요 이슈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이 문화산업 안보 강화에 대해 한국이 주목해야 할 원인은 한류 산업 때문이다. 한류 산업이 한국 경제와 한중 경제 교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내용이고, 최근 방송계 PD등 제작진들이 한국에서 사표를 내고, 직접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반면에, 사드배치 문제로 시진핑 정치 노선의 불만을 야기한 결과, 중국 광전국과 소위 인터넷정보소조의 간섭의 결과로, 몇몇 한중 예능 합작 한류 작품들이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⁴⁵⁾.

그러나, 시진핑 정치가 중국에서의 한류 문화 확산을 간섭할 수 있을 것이나, 중국 전체에 이미 확산된 한류 문화는 “상호 교류”, “상호 존중”, 그리고 “상호 이익” 추구 원칙을 잘 관리한다면, 중국내 한류문화는 장기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한류문화의 확산에 유리한 최근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도 중국내 한류문화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해시 봉현구(奉賢區)가 그 지역을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 벨리처럼, 동방미곡(東方美谷), 즉 21세기 글로벌한 Oriental Beauty Valley로 개발하겠다고 하며, 필자를 친상대사로 추대한 바 있다. 그 동방미곡의 주요 산업 내용이 미용, 건강, 의료, 기타 문화 산업 등의 한류 산업이다. 문화 산업에 대한 시진핑의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오히려 북경, 상해, 천진시의 자유 무역구 내에서는 방송 제작물과 그 제작물의 유통 산업과 관계된 해외 외자 기업의 100% 독자 설립까지 허락하고 있다. 북경시 자유 무역구 내의 경우, 한국 문화 산업 기업이 입주할 경우, 2016년 2월 현재 가격으로 약 1만 인민폐(한국돈 약 200만원) 정도면 100평방 미터 정도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을 만큼, 북경 시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좋은 환경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주기도 한다. 당 무역구내에서 50년 사용 조건의 기업 사무실의 100 % 독자 구매도 가능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의 접근성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삼성 핸드폰, 현

4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0949

대차 등의 부진한 실적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반면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잘 허가를 해 주지 않았거나, 금지 분야였던 대부분의 문화 산업을 포함한 의료 등 기타 서비스 산업 분야까지도 중국은 이제 해외 자본의 투자를 허가하고 있다. 시진핑의 문화 산업의 안보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상호교류”, “상호이익”, “상호 존중” 그리고, “문화산업에 우호적인 최근의 중국 개혁개방 정책”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2016년 거대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류 문화 산업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길 기대해 본다.

[ABSTRACT]

Xi Jinping's Politics: Korean Wave Fever

Shin Il Liu
Kosin University

Since Xi Jinping Political line started General Reform policy in 2013, the 2016's new reform objective is the so called cultural industry such as internet, publishing, Mass-media, newspapers, TV, etc.. Xi Jinping has focused on the security-strengthening of politics, economics, defense, Taiwan-relationship since 2013, while he is proceeding to reinforce the security of mass media, TV, Newspapers, Internet, etc. in 2016. Of course, although Xi Jinping is expected to deal with not only economic issues such as 13th-5years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One Belt One Road project, the 2016's new reform objective will be an important concerns of China government. This 2016's new reform objective will be also important to South Korea because of the relationship with Korean wave fever. Nowadays, Korean wave fever has contributed a lot to South Korea Economic growth and South Korea trade. Although in 2016, Xi Jinping politics is reinforcing the management, intervention and censorship on cultural industry such as internet, publishing, Mass-media, newspapers, TV, etc.,there are much more advantages and benefits for overseas investments in cultural industry comparing with past, which the Korean Wave fever related industry can enjoy and utilize in China market. Some service and cultural industry was not allowed to invest in China, but today's China policy is welcoming overseas investments'in those industries. If Korean Wave Fever is to well include the principles of "mutual-exchanges", "mutual- benefits", "mutual respect" and to well utilize "the recent China's friendly reform policy toward cultural-service industry", the advantages and high fever of Korean wave in China still can be maintained and developed toward upgraded stage.

Key Words: Xi Jinping, Mass Media, Korean Wave Fever, Political Power, Cultural Industry, Dependent Variable, Mutual Benefit

참고문헌

□ 단행본

- 유신일, 『초강대국 중국의 재등장』, 다솜출판사, 2012
- _____, 『중국공산당의 과거, 현재, 미래』, 매일경제출판사, 2011
- 谢凡平, 『总理争夺战』, 领袖出版社, 2015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習近平關於實現中華民族大復興的中國夢論述摘編』, 中央文獻出版社, 中國, 2013
- 吳敬璉, Robert W. Fogel 等, 『中國未來30年』, 全國百佳出版社, 中國, 2011
- 李家緯, 林明謙, 『你爲甚麼要懂中國十二五經濟規劃』, 財信出版有限公司, 中國, 2010
- 林毅夫, 『解讀中國經濟』, 時報文化出版企業股份有限公司, 臺灣, 2010
- 徐明, 趙文階, 孫飛, 『中國經濟大趨勢』, 高寶書版集團, 臺灣, 2010
- 余鏡懷, 『中國產業競爭力研究』, 經濟管理出版社, 中國, 2011
- 郎咸平, 『新政能否改变中国』, 東方出版社, 中國, 2014
- 吳曉波, 『激蕩30年下』, 中信出版社, 中國, 2008
- 俞可平主編, 『中国治理變遷30年』, 社会科学文獻出版社, 中國, 2008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習近平關於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的中國夢論述摘編』, 中央文獻出版社, 中國, 2013
- 唐洲雁, 『實現中國夢的重大戰略部署』, 中央文獻出版社, 中國, 2013
- Blanning, T, "The Culture of Power and the Power of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Clive Gray, "Politics and Culture: Reformulating the Proble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Aberdeen University, 2002
- James Trippon, "Becoming Your Own China Stock Guru", Merlin Publishing, U.S.A. 2009
- Zhi Yue Bo, "Chinese Provincial Leaders Economic Performance and political Mobility since 1949", M.E. Sharpe Inc. 2002

□ 논문 및 평론

- 서동훈, 박영균, "한류가 베트남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11.15.
- 유신일, "중국에서의 한류", 『China 연구』, 제14집, 2013.2
- _____, "시킨핑 노선과 그 의미", 『한국동북아 논총』, 제19집, 3호, 2014

- 최석만, “한류:한국전통문화의 재해석”, 「동양사회사상」, 제15집, 2007
- 조선일보, 2005년 9월 2일
- 중앙일보, 문화일보, 서울 신문 등 2014년 1월 10일
- 彭博商業周刊 / 習近平改革 帶來美麗或哀愁? | 兩會報導 | 兩岸台商 | 聯合新聞網, 2013
- A Survey of China, “The Economist”, June 15, 2002
- David Barboza, New York Times, Nov. 15, 2011
- Finlayson, A and J. Martin, “Political Studies and Cultural Studies”, Politics, Vol.17, 1997
- Prasenjit Basu, “China’s crisis is coming—the only question is how big it will be”, Financial Times, April 27, 2014
- Wallis, J and B. Dollery, “Understanding Cultural Changes in an Economic Control Agency”, Journal of Public Policy, Vol.21, 2001

□ 인터넷 웹사이트자료

- <http://magazine2.movie.daum.net/movie/37260>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02_0010453496&cID=10101&pID=10100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0949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3/0200000000AKR20160203118600089.HTML>
- <http://udn.com/NEWS/MAINLAND/MAIN1/8525927.shtml#ixzz2v4F3OGcL>
- <http://news.qq.com/a/20140614/006237.htm>
- <http://www.ft.com/intl/cms/s/0/f627e162-cc96-11e3-ab99-00144feabdc0.html#axzz34IOVZihW>
- <http://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14/04/29/2011-international-comparison-program-results-compare-real-size-world-economies>
- <http://history.n.yam.com/newtalk/international/20130816/20130816689510.html>
- <http://www.rfa.org/mandarin/zhuannan/yehuazhongnanhai/gaoxin-11282012162713.html>
- <http://news.sina.com.cn/c/2012-12-26/003725892315.shtml>
- <http://bbs.qqos.com/viewthread.php?tid=1917399>
- <http://news.sohu.com/20121116/n357748277.shtml>
- <http://news.sohu.com/20121116/n357748277.shtml>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h.html>
-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0/01/04/1230000000000000>

<http://www.ft.com/cms/s/0/f627e162-cc96-11e3-ab99-00144feabdc0.html#axzz35BNGWKOA>

<http://time.com/8671/why-you-need-to-worry-about-chinas-shadow-banking/>
Feb.19, 2014

<http://www.stats.gov.cn/tjsj/ndsj/2013/indexch.htm>

<http://www.theatlantic.com/infocus/2012/02/rising-protests-in-china/100247/15>.

<http://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2/01/how-china-stays-stable-despite-500-protests-every-day/250940/>

<http://history.n.yam.com/newtalk/international/20130816/20130816689510.html>

<http://news.qq.com/a/20140614/006237.htm>

<http://www.chinatimes.hk/show.asp?ArticleID=29289>

<http://www.chinatimes.hk/show.asp?ArticleID=23256>

<http://hk.apple.nextmedia.com/international/art/20131108/18498430>

<http://hk.apple.nextmedia.com/news/art/20131206/18539089>

이 논문은 2016년 11월 4일 접수되어 12월 6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9일 게재 확정됨.